

#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박물관 교육 경험 분석

## - 부산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은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고미정 부산박물관 교육 강사

### I. 서론

### II.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과 박물관

1.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2.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박물관 교육

### III. 부산박물관 문화나눔프로그램과 연구데이터 수집

1.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 부산박물관 문화나눔프로그램

### IV.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화나눔프로그램의 의미

1. 연구 데이터
2. 연구 결과의 해석

### V. 결론

#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박물관 교육 경험 분석

## - 부산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 I. 서론

저소득층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최저생계비<sup>1)</sup> 이하의 생활을 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계층”<sup>2)</sup>이다. 한국 사회의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 그 원인은 개인의 능력과 성장 환경보다는 사회 시스템과 구조의 원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빈곤의 되물림,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그들이 처해진 경제·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불리함과 제약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7년부터 2015년 계층 이동률 분석을 보면 분석 대상의 70%는 소득에 변화가 없거나 더욱 빈곤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된 원인은 지속성 없는 일자리와 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박탈이다.<sup>3)</sup>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육이라는 기회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

1) 2018년 최저보장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2) 공지영,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탐구교실의 효과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 윤성주,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11권 1호(2018), pp.21-48.

고 있으며, 이는 향후 빈곤의 되물림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아동들의 성장에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학습 환경에 노출이 적게 되어 결국 교육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게 되고 낮은 학업 성취율 또는 학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장환경의 문제들은 아동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 대처능력의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게 되어 성숙한 사회인으로 나아가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의 경우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용이 높아진 만큼 공교육 외에도 다양한 사교육과 체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체험 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고 높은 학업 성취율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압박감, 예를 들어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소외감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육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박물관의 교육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부산박물관에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위한 “드림드림박물관교실” 참여 아동들을 선정하였다. 지난 4년간 운영된 본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 및 설문지, 그리고 드림드림박물관교실을 운영한 교육강사 3인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박물관 교육에 참여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이와 같은 박물관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첫 장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직면한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잠재력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박물관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접점을 알아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점쳐본다.

다음으로 부산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외계층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연구 대상 프로그램의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살펴본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목적과 현황을 통해 박물관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천해야 할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4) 박귀엽, 조희숙,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사회적 증진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논총』15-2(2006), pp.163-176. 정미라 외 2007.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체험한 교육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지 살펴보고 미래 박물관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 II.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과 박물관

### 1.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sup>5)</sup>에서 살펴보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고 있다.<sup>6)</sup>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각각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공공 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평생교육법<sup>7)</sup>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

박물관은 이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속한 전시시설에 해당되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해야할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를 살펴보면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활성화에 대한 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sup>8)</sup>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9)</sup> 따라서 부산시 산하 사업소인 부산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교육의

5) 시행 2017. 3.21. [법률 제14630호, 2017. 3.21. 일부개정]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1항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3항

8) 저소득층, 장애인 등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이들이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6월 발표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적 여가약자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며 특히 아동의 경우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sup>10)</sup>’이 강조됨에 따라 낙후지역의 어린이 시설 폐쇄가 증가하여 여가 기회가 감소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은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sup>11)</sup>의 여가소비가 월 70,000원에 이르고 있으나 차차상위계층<sup>12)</sup>의 경우 50,000원에 머물러 ‘여가 사각계층’의 새로운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식사업,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에 집중된 여가 산업의 투자로 인해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박탈당하여 10대의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일부 부작용을 몰고 오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여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의 체험프로그램 확대, 창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을 추진하여야 하며 여가취약계층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 예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영향에 대해 연구한 김은영<sup>13)</sup>은 문화예술교육이 사교육과는 다른 “부모의 충분한 물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소통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정의한다. 언급하였듯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제적 빈곤함은 학교에서의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공교육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의미하고 낮은 학업 성취도와 자신감 결여, 학업에 대한 흥미도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이다.<sup>14)</sup>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잠재되어 있는 아동들의 학습 가능성을 이끌어 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 지식 전달이 중심인 학교교육에서의 전인 교육 실천은 힘들 수 있으나, 개인의 내면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자아 표현이 중심이 되는 비정형화된 학습인 문화예술교육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10) 시행 2017. 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1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226만원 이하 가구(2018년 기준)

1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271만원 이하 가구(2018년 기준)

13) 김은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예술경영연구』19-8(2011), pp.5-31.

14) 이예스더, 홍정은, 「방과 후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설계」, 『예술교육연구』10권 제1호(2012), pp.65-92.

## 2. 문화예술교육<sup>15)</sup>으로서의 박물관 교육

박물관 교육이 가지는 여러 특징 중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합성을 들 수 있다.<sup>16)</sup> 박물관 교육은 실물을 기반으로 한 비정형화된 교육으로 특히 학습 결과물에 중점을 두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참가자의 학습 과정을 더 중요히 여긴다. 박물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의 방법과 학습자의 학습 과정이다. 교과과정 중심으로 평가가 필수인 학교교육에서는 다채로운 학습 방법을 접목시키기 어려우나 정해진 틀이 없고 책 대신 박물관 전시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박물관 프로그램은 방법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또한 평가가 없으므로 결과 중심이 아닌 참가자들의 학습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박물관 교육을 공교육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큰 특징이며 바로 문화예술교육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다.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다양한 교육적 역량을 포함한 인지적·감성적 성숙, 문화적 성장을 위한 것”<sup>17)</sup>으로 방법적 측면에서도 “나열식 구조가 아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육의 방법”이 특징인 것이다. 즉 일방적 지식중심의 전달이 아닌 유기적이며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감성적이고도 문화적 성장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현재 박물관 교육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 교육의 효과와 역할에 대한 연구가 다수임에 비해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교육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적은편이다.<sup>18)</sup>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 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 연구가 시급하며 그 효과를 밝혀 보다 차별성 있고 전문적인 박물관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부산박물관에서 운영한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5)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및 논의는 박은신(2018)의 논문을 참조한다.

16) 박은신 앞의 논문(2018), p.13.

17) 박은신 앞의 논문(2018), p.13.

18)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관련 연구는 미술관에 집중되어 있다. 박물관의 경우 석진희(2014)와 이동은(2009)의 학위 논문이 가장 최근에 해당된다.

### Ⅲ. 부산박물관 문화나눔프로그램과 연구데이터 수집

#### 1.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2016년 기준 국내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4,107개소로 이용 아동은 106,668명으로 집계 된다.<sup>19)</sup>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sup>20)</sup> 1980년 빈곤운동에서 시작된 공부방이 그 기초가 되며 법제화 된 2004년 시설별로 67만원씩 국고를 지원받아 985개소 23,347명의 이용 아동이 생겼다. 2008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아동센터에 대한 서비스 질을 고민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부산의 경우 현재 2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된 역할로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기회제공 등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sup>21)</sup>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아동 센터 이용 가능 기준은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으로 정원의 80% 이상은 우선보호아동<sup>22)</sup>이며 일반아동<sup>23)</sup>은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sup>24)</sup> 부산은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구군별로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다.<sup>25)</sup> 위 주요한 네 가지 기능 중 본고에서 다룰 문화서비스 기능은 직접 기관들이 체험처를 발굴하거나 문화교육적인 학습내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문제는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아동센터만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이다.<sup>26)</sup> 인력을 수급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아동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9)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http://www.icareinfo.co.kr>

20) 아동복지법 제52조8항

21) 부산광역시 아동지원사업 현황 <https://www.busan.go.kr/womanfamily/childpromo04>

22)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우선보호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23)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24) 지역아동센터부산지원단 <http://bro3c.org/b39>

25)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051-888-1641

구·군별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중구(여성가족과), 서구(가족행복과), 동구(복지사업과), 영도구(복지사업과), 부산진구(여성아동가족과), 동래구(주민복지과), 남구(주민복지과), 북구(주민복지과), 해운대구(복지정책과), 사하구(복지정책과), 금정구(여성가족과), 강서구(주민복지과), 연제구(가정복지과), 수영구(복지서비스과), 사상구(복지서비스과), 기장군(인재양성과)

26) 정지옥, 「부산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그러나 부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부산박물관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부산지역아동센터 담당자들이 문화체험활동처를 발굴하는 데 애로사항<sup>27)</sup>이 있다는 점에서 부산박물관 드림드림박물관교실 등의 문화나눔프로그램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부산박물관 문화나눔프로그램

1978년에 개관한 부산박물관은 2016년 교육홍보팀 신설 이후 교육프로그램의 양적 성장과 함께 사회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 등의 운영을 통해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부산박물관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총 16종이며 그 중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조용한 수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드림드림박물관교실’, 돌봄교실 학생 대상 ‘문화나눔프로그램 나도 박물관 통신사’,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찾아가는 부산박물관 역사이야기’ 등이 있다.

### 1) 조용한 수다

부산 지역 장애학생들을 위해 기획된 조용한 수다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주로 부산박물관 근거리 지역에 있는 지적, 청각장애학생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용한 수다는 찾아가는 박물관 형식으로 연 4회 운영된다.

2016년부터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해 설립된 배화학교<sup>28)</sup>와 연계하여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경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조용한 수다 내용은 복제 유물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 느껴보고 해당 유물의 특징을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설명한 다음 여러 종류의 재료로 자신만의 유물로 표현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교안은 아래와 같다

27)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문화향수 실태조사』(2006).

28) 1953년 서울맹아학교 부산분교로 개교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부산 대표 공립 특수학교로 총 학생수 89명으로 부산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다.

표 1. 조용한 수다 프로그램 교안(2017년)

프로그램 과정	내용	수업방법	결과물
박물관 소개 및 예절	박물관 알아보기	PPT, 노래	예절배우기
나는 누구일까요?	박물관 유물에 대해서 배워 보고 직접 만져보기	유물 만져보기	유물경험
내가 만들어 본 유물	만져본 모형유물을 플레이콘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플레이콘, 그리기	플레이콘 결과물
발표 및 정리	내가 만들어 본 부산박물관 유물	발표	-

## 2) 문화나눔프로그램 나도 박물관 통신사

2015년 박물관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히 기획된 문화나눔프로그램으로 학교 방과후 교실 및 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5년 11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박물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조선통신사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시해설과 함께 퀴즈를 풀고 컬러비즈로 대표 유물을 만들어 본다. 총 8회 운영되었으며 회당 약 2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진행 교안은 아래와 같다.

표 2. 나도 박물관 통신사 교안(2015년)

프로그램 과정	내용	수업방법	결과물
통신사는 누구일까요?	통신사 이해	PPT	이해
전시해설과 미션퀴즈	통신사 유물 전시해설 및 조별 미션퀴즈	해설 및 퀴즈풀기	미션퀴즈
내가 만들어 본 유물	통신사 대표 유물 컬러비즈	컬러비즈 만들기	비즈 작품
발표 및 정리	내가 배워 본 통신사 발표	발표	-

## 3) 찾아가는 부산박물관 역사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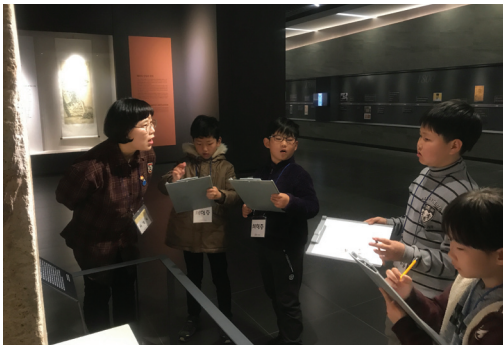
부산박물관은 2012년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부산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과 MOU를 맺고, 각 지원청 소속 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부산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학급이 박물관에 와서 듣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역사이야기” 수업과 박물관 소속 교육강사들이 학교로 가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부산박물관 역사이야기”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서부교육지원청 소속의 초등학교는 박물관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들로 박물관 방문의 기회가 적다. 따라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에 박물관 강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학급 단위로 부산의 역사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1학기 주중에 신청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표 3. 찾아가는 부산박물관 역사이야기 프로그램 교안(2018)

프로그램 과정	내용	수업방법	결과물
부산박물관 소개	부산박물관에 대한 소개	PPT	부산박물관 이해
부산의 역사	부산의 역사-통사	PPT	역사 이해
역사 관련 퀴즈	퀴즈 풀고 이해하는 부산 역사	퀴즈	-
설문지	수업평가	설문작성	-

#### 4) 드림드림박물관교실

부산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부산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월 1회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부산 관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회당 2시간 운영되며 평균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4년째 운영되고 있는 드림드림박물관교실은 매년 프로그램 주제를 바꾸어 운영되고 있다.<sup>29)</sup>



도 1. 드림드림박물관교실 수업 장면

표 4. 드림드림박물관교실 교안(2018)

프로그램 과정	내용	수업방법	결과물
부산과 일본	부산과 일본의 관계 배우기	PPT	역사이해
전시해설	일본 관련 유물 중심 해설	전시해설	전시이해
스노우볼 만들기	대표유물 그려서 스노우볼 만들기	만들기	스노우볼 작품
결과발표	발표 및 평가	발표	-

29) 드림드림박물관교실 주제는 아래와 같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선시대 통신사	선사시대로 고고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	조선과 일본

## IV.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화나눔프로그램의 의미

위에서 살펴 본 4가지 프로그램 중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해 진행되는 드림드림박물관교실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저소득층 대상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필요성을 살펴보자.

### 1. 연구 데이터

먼저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드림드림박물관교실 프로그램은 2016년 3월부터 12월중 두 번째 주 토요일(1년간 총 10회)에 진행된 “선사시대로 고고”라는 프로그램이다. 선사인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박물관 유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시해설을 들은 다음 조별로 주어진 선사시대 테마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본다.<sup>30)</sup> 그리고 자신이 가장 관심 있었던 유물을 직접 그린 다음 컬러비즈로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회당 20명에서 25명의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학년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였다. 총 참여 인원은 223명이며 연구 데이터는 학생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 150장, 프로그램 마인드맵 40장, 드림드림박물관교실 운영 교육강사 면담내용(3명)으로 모두 세 가지이다.

### 2. 연구 결과의 해석

#### 1) 사전·사후 설문지 분석

설문지 문항 내용은 운영된 프로그램의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사전과 사후 동일하게 만들어졌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 답변과 프로그램 참여 후 답변을 비교하여 정답률을 조사하였다. 또한 비교대상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한 일반학생<sup>31)</sup>들의 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총 7문항의 객관식으로 표5와 같이 구성하였다.

30) 선사인의 먹거리, 무덤, 도구, 종교

31) 연구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드림드림박물관교실 참여자 외 학생들을 일반학생이라 칭한다. 일반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으로 10개월간 총 160명이 참여하였고 드림드림박물관교실과 동일한 프로그램 내용을 학습하였다.



표 5. 선사시대로 고고 사전·사후 설문지 내용<sup>32)</sup>

번호	문제
1	글자가 생겨나기 이전의 시대는 무엇일까요?
2	선사시대 사람들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무엇일까요?
3	돌로 만든 도구는 무엇일까요?
4	선사시대 사람들이 버린 조개껍데기가 쌓여서 무덤처럼 된 것은 무엇일까요?
5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에 새긴 그림은 무엇일까요?
6	선사시대 사냥도구로 사용되던 돌중에서 일본에서 나고 단단하고 손질하기 쉬운 검정색 돌은 무엇일까요?
7	선사시대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넓은 돌을 덮어 만든 무덤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 결과는 도2와 같다. 왼쪽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결과이며 오른쪽은 비교집단 학생들의 결과이다. 각 조사 결과의 추가 상승률은 그래프의 윗부분에 추가적인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전 학습지 평균 정답률은 각각 91%, 83%, 81%, 40%, 64%, 64%, 91%였으며, 비교집단 학생들의 사전 평균 정답률은 45%, 60%, 78%, 51%, 56%, 35%, 91%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전 학습지 평균은 74%로 평균 정답률이 59%인 비교집단 학생들보다 15% 높은 결과를 보였다. 비교집단 학생들의 경우 참가 학생들 50%이상이 역사를 전혀 배우지 않은 저학년(1~3학년)으로 평균을 구하는데 있어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들의 경우 저학년이 20%로 대부분 고학년(4~6학년)아동들이므로 역사를 사전에 학습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이는 곧 비교집단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로 차이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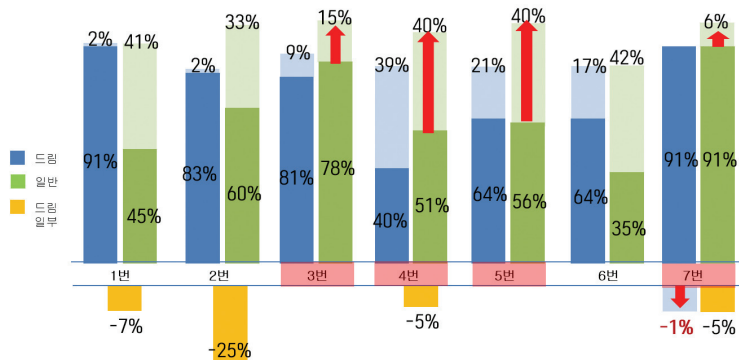
그러나 수업 종료 후에 실시한 사후 설문지의 결과,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평균 정답 상승률은 12%였다. 이는 평균 정답 상승률이 30%인 비교군 일반학생들에 비해 약 2배 정도 낮은 결과다.

수업 종료 후 일반학생들은 높은 정답 상승률을 보이며,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과의 격차를 줄여 전 문항에서 비슷한 인식수준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경우, 사전에 정답을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 사후 설문지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설문지의 문항 7번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평균 정답 상승률이 1%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특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후 설문

32) 본 설문지는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질문의 타당성은 사전 프로그램 협의 기간 중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들의 자문을 받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지 문항의 정답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문항 2번의 경우는 평균 정답률이 25%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도 2. 지역아동센터와 일반학생들의 사전·사후 설문지 결과 분석

이를 해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응답한 프로그램 평균만족도는 96%로 평균 만족도가 91%인 일반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연관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동등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다소 불합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곧 낮은 학업 성취 태도로 이어진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볼 때<sup>33)</sup> 박물관이라는 수업 환경에 노출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결과를 점검하는데 있어 일반 비교군 학생들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 2) 마인드맵 분석

다음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 이후 작성한 마인드맵의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인드맵은 두뇌의 사고과정 패턴을 반영하는 복사사고를 표현한 것으로<sup>34)</sup> 학생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개념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사고 기술이다. 수업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개념들을 연상하도록 한 후 그 개념들을 모두 종이에 적도록 하였으며, 그 관계를 결정할 수 있으면, 그 요소에 대한 이해 정도를 밝혀 낼 수 있다<sup>35)</sup>고 파악하였다.

33) 강영주, 「교육소의계층의 교육지원방안」,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4) Buzan, T, 라명화 역, 『The Mind Map Book』, (서울: 평범사, 1994), pp.94-151.

35) White, R., & Gunstone, R., Probing understanding, (London: Palmer Press, 1992).

“선사시대로 고고” 프로그램 종료 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비교군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후에 생각나는 단어들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서 추출된 단어들을 각각 빈도분석을 통해 분류하였으며 내용은 표6과 같다.

표 6. 지역아동센터와 일반학생들의 사후마인드맵 단어 분석

	지역아동센터 학생		일반학생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1	고래	30	고래	43
2	돌	25	동물	35
3	사냥	17	돌	30
4	뎌석기	14	사냥	30
5	도구	12	사슴	27
6	작살	12	작살	26
7	청동거울	12	가죽	24
8	나무	9	멧돼지	22
9	청동검	9	표범	22
10	멧돼지	8	물고기	21

그 결과 중복된 단어를 포함하여 아이들이 마인드맵에 표현한 총 단어 수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458개, 일반학생들은 1407개였으며, 중복된 단어를 제외한 단어 수는 각각 134개와 516개였다. 따라서 단어의 유창성 측면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보다 일반학생들이 더 많은 단어 수를 보였다. 그러나 단어들을 빈도수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상위 빈도수를 차지한 단어들은 매우 유사하였다. 10개의 상위 단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공통된 단어는 고래, 돌, 사냥, 작살, 멧돼지로 선사시대인의 생활을 배워보는 ‘선사대로 고고’ 프로그램의 주제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그 외의 단어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경우는 동물, 사슴, 가죽, 표범, 물고기 등으로 앞서 언급한 상위 단어의 성격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의 주제와 부합하는 단어들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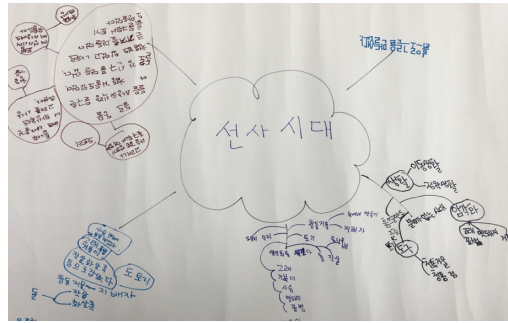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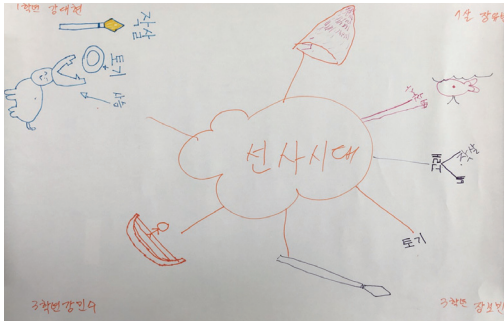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은 마인드맵 표현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비교군 학생들은 배운 내용들을 도3과 같이 단어들의 나열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경우 도4와 같이 마인드맵에 단어를 그림과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인드맵에서 이와 같이 색칠이 등장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 학생이 해당 단어에 대하여 자기만의 의미로 개념을 체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단어는 본인에게 특별한 연상을 불러일으키고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단어로 본인이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인드맵에서 단어로 나열하는 것이 비교 대상인 일반학생들에게서 관찰되었으나 그림 및 색칠이 된 마인드맵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경우 자유로운 색과 그림으로 표현한 개체가 총 10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은 배운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언어적인 능력이나 유창성 부분이 부족하여 단어 개체 수가 일반학생들에 비해 적은 결과를 보일지라도 상위분석된 공통된 단어들은 동일하므로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인지능력은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나아가 자신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단어를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만의 단어로 체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만이 가지는 특징으로 파악되며 추후 학생들의 연상 작용이 창의력으로 이어지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도 3. 일반학생 마인드맵



도 4. 지역아동센터 학생 마인드맵

### 3) 드림드림 교육프로그램 담당 교육강사 면담

앞서 설문지와 마인드맵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미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드림드림박물관교실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는 교육강사 3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내용은 주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었다.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할 때 일반학생들 수업보다 유의하는 점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설명함에 있어 해당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글을 쓰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집중력이 비교적 낮은 경향이 있어 실용적인 주제로 연결하여 공감대를 유도하는 점을 꼽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후 설문지의 정답률 감소 결과와 연결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수업의 맨 마지막 내용과 관련된 전체 정답률이 낮으며, 특정 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결과는 아니나 해당 지역센터 아동들의 수업 참여 의지, 태도, 자아존중감과 관련지어 집중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의 경우 또래들 간의 경계가 확연히 드러나는 편이라고 하였다. 같은 지역아동센터 소속일 지라도 또래간의 구분이 명확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나이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책임감과 소속감을 주어 함께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간의 경계를 허물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집중적인 관심과 칭찬 등의 호의적인 반응을 통해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려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친밀감을 형성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경우

에는 일정한 형식으로 공통점을 보이는 일반학생들보다 자유로운 표현이나 상상력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박물관은 학교와는 달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고 다양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박물관의 다양한 형태의 수업은 혼합연령의 집단구성에서 오는 유사형제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연령이 높은 아동은 연령이 낮은 아동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연령이 낮은 아동은 자신의 실패가 발달 혹은 연령차에서 오는 당연한 절차로 실패 혹은 실수를 좌절로 인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혼합연령집단의 이러한 장점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시너지 효과<sup>36)</sup>를 주므로 지향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세 번째, 박물관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태도변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경계심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수업 초기에는 소극적이고 경계하는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 간, 학생과 교육강사 간에 라포가 형성된 후에는 일반학생들보다 더욱 친밀한 표현을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화체험 영역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성 발달과 정서 발달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정서 인식, 정서표현, 공감,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sup>37)</sup>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하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특히 매년 연속으로 온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강사에게 높은 친밀감을 표현하며,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수업을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회적 조직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학교적응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학업성적과도 관계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낮은 존중감은 자신을 거부하고 불만족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sup>38)</sup>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삶의 태도 등 개인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

36) 이순복·손지향(2011), 「창의성 증진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창의성 및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제 20호 3권, p.46.

37) 하대현·장영은(2012),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지능,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6권 1호, p.97.

38) 하대현·장영은(2012) 위 논문.

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최종적으로 이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박물관의 문화나눔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분석을 통해 그들이 박물관에서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미친 학습 경험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나눔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지향점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사후 설문지 분석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역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에 대한 사전지식은 개별적인 경험과 관심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학생의 경우 사후 설문지 결과에서 사전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마인드맵 분석 결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제를 습득하는 능력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위 5가지 단어는 모두 동일하였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 교육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단어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경우 마인드맵을 표현함에 있어 글을 쓰는 능력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부족하여 개체 수에서는 차이가 보였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경우 창의성 발현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다. 마인드맵 분석 결과 일반학생들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마인드맵에서 그림 표현, 색칠 표현, 문장 표현이 다수 등장하였다. 이는 마인드맵 분석법에서 해당 단어를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강사의 면담에서도 깊은 친밀감을 형성한 학생의 경우 창의적인 표현이나 자유로운 상상이 일반학생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창의성 발현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박물관에서의 또래들과의 협력활동, 교사와의 친밀감, 칭찬 등으로 인한 박물관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학생들의 창의성의 발현, 적극적인 태도,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며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아동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상 4가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문



화나눔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기대와 동기, 선행경험, 지식, 흥미 등을 파악하여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살펴본 결과,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경우 박물관 교육기회를 통하여 창의성의 발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은 단순 만들기 또는 단순 체험 중심인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과 창의력 발현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을 파악하고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나눔프로그램의 운영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문화나눔프로그램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므로 지역아동센터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강사 면담에서 밝혀졌듯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경우 낮은 공간에 대한 경계가 강하므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가 다소 저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몰입을 유도하여 최적의 학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더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박물관 노출경험으로 이끌어야 한다.

셋째, 박물관은 대상의 구분 없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육기관이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워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박물관 교육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부산박물관에서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의 공동체적인 협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후퍼그린힐<sup>39)</sup>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박물관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박물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스스로 역할의 재분배와 기능의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한다. 또한 Price(2005)는 “박물관의 역할은 더 이상 유물 보존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유물을 지속적으로 재해석하고 공유하여야 한다.”<sup>40)</sup>라고 정의하였으며 재해석과 공유의 관점에서 박물관 교육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공유하여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박물관 교육의 역할이 될 것이다.

39) Hooper Greenhill Eilean, Museum and Education (London: Routledge, 2007)

40) “The role of museums is no longer limited to the conservation of objects: they also have to share and continuously reinterpret them”

## 〈참고문헌〉

### 〈국내논문〉

- 강영주, 「교육소외계층의 교육지원방안」,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은경, 「창의적 과학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과학 태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진로 결정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은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예술경영연구』19-8(2011), pp.5-31.
- 공지영,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탐구교실의 효과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귀엽, 조희숙,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사회성 증진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논총』15-2(2006), pp.163-176.
- 박은신,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이화박물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석진희, 「박물관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활용방안: 지역시민과 문화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동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덕수궁미술관 중심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순복·손지향, 「창의성 증진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창의성 및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2011), p.46.
- 이에스더, 홍정은, 「방과 후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설계」, 『예술교육연구』10권 제1호 (2012), pp.65-92.
- 윤성주,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11권 1호(2018), pp.21-48.
- 정미라, 곽은순, 유장숙,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실태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12-4(2007), pp.347-369.
- 정지옥, 「부산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하대현·장영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지능,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2012), p.97.

### 〈국내저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7).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외국서〉

#### - 저서

Hooper Greenhill Eilean, *Museum and Education* (London: Routledge, 2007).

White, R., & Gunstone, R., *Probing understanding*, (London: Palmer Press, 1992).

#### - 번역서

Buzan. T, 라명화 역, 『The Mild Map Book』, (서울: 평범사, 1994), pp.94-151.

#### - 논문

Price C., 「Bodies Building」, 『Museums Journal』 102-4(2002), p.17.

###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accessed dt. Oct. 1, 2018

부산광역시 여성가족부, <https://www.busan.go.kr/womanfamily/childpromo04>. accessed dt. Sep.

23, 2018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https://www.icareinfo.go.kr/main.do> accessed dt. Sep. 21, 2018

## Abstract

### Study of Effects of Museum Education for Students at Local Children Centers: The Case of Busan Museum

Jeongeun Lee  
Curator, Busan Museum

Mijeong Go  
Museum teacher, Busan Museum

The Busan Museum, one of the definitive municipal museums in Busan, is marking its 40th anniversary this year. Since opening in 1978, it has been holding diverse exhibi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s, to promote the history and culture of Busan among local citizens and people in other regions.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 and PR team in 2016, the museum has been working to create an image as a citizen-friendly museum with much to offer by holding diverse events and education programs.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useum education by analyzing the participants of “Dream Museum Class (hereafter, “Dream Class”), which has been operated for disadvantaged local children since 2015. The research data included the products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Dream Class over the last four years,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three lecturers involved in the program. Based on an analysis of the above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effects can be expected from museum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as well as the meaning of such programs. The first chapter examines the challe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aced by low-income students and explored the opportunities and potential that art and culture education can offer to these students. Next, the details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disadvantaged run by the Busan Museum and the methods for collecting data on such programs were examin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see how the programs influenced the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and the implications for museum education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pre- and post-class questionnaires revealed that students from the local children's centers did not lack background knowledge on history compared to other the student population. However, the level of knowledge decreased in post-class questionnaires compared to pre-class questionnaires, which calls for further study. Second, the mind maps made by the students after the class proved that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themes of a class was similar between students from local children's centers and those from the general population. However, students from the children's centers were found to be freer in expressing their thoughts since they used drawings, paintings, diverse colors, and sentences in addition to keywords. According to the mind map analysis, these students took what they learned and made it their own. Finally, the positive experiences gained at the museum by students from the local children's centers through collaboration with peers and close contacts with and compliments from teachers improved the children's self-esteem. This can be confirmed in their expressions of creativity, positive attitudes, and relationships with peers. It is expected that this improvement in self-esteem will eventually impact the attitudes towards life expressed by these children.

**Keywords:** Museum, Museum experience, Museum education for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Effects of education, Disadvantaged class